韓國의 대학과 大學新聞

尹 嬉 重
(梨花女大 新聞放送學科)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의 각기 다른 지역에 있는 3개 지방대학과 서울지역 3개 대학의 차이를 大學新聞의 내용분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의 대학신문들은 서울과 지방을 막론하고 대학행정과 사회에 대해 부정적 비판의식이 높고 지역사회의 지정학적 위치, 규범과 가치, 정치·사회·문화 의식, 외부환경과의 상호 작용 정도 등의 변인에 의해 영향받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여기서 서울 지역 대학과 지방대학 신문 간에는 비교적 뚜렷한 차이점이 있으나, 지방대학 간에는 상대적인 차이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 序 論

1945년 해방 이래 한국의 고등교육기관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팽창해 왔으며, 이러한 고등교육의 대중화현상은 우리 사회의 발전과 경제규모의 증대 양상에 비추어 볼 때 당연하고 필수적인 전제 요건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高等敎育의 普遍化가 그 양적 팽창에 비해 질적 발전을 수반하지 못한 채 진행되었다는 비판론 또한 일반적이다.

즉, 1945년 12월 현재 한국 사회에는 약 20개의 고등교육기관이 존재했고 여기에서 753명의 교원이 약 8,000명의 학생들을 교육시키고 있었음에 비해 40년이 지난 1981년 현재에는 고등교육기관수가 약 11배(221개교, 전문대 포함), 교원수는 약 31배(23,422명) 그리고 학생수는 약 101배(721,026명)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한국 대학교육 실태에 관해 교육사회학적 관점에서 경험적 연구를 시도한 한준상(1983)은 고등교육 관련개혁가, 기업주의적 육영가들, 대학생 집단의 이해관계가 한국 대학교육의 아메바적 증식과 팽창을 방조했다고 주장한다.

또한 한국의 현행 대학교육이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따라서 후진성 극복과 새로운 이념 및 새로운 유형의 대학을 창출하는 것이 우리 대학의 당면과제라고 주장하는 비판도 있다.

이상과 같은 대학교육의 아메바적 양적 팽창은 대학생들에게 일정한 대학의 특성, 이념을 결여한 비슷비슷한 행동, 태도, 지식, 품성 등을 4년 동안 배우도록 강조하는 대학이 되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된다. 즉, 한국의 대학은 각자의 고유한 특성과 이념의 부재 속에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며, 이것이 또한 우리나라 대학의 특성이라는 역설도 가능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글에서는 각기 다른 지역사회에 속한 大學의 特性差를 대학신문의 내용분석 결과를 토대로 제시하고자 한다. 대학신문을 분석대상으로 한 것은 대학신문이 인쇄매체로서 기록 보관이 가장 잘 되어 있다는 점과, 대학이라는 공동체(community)의 의사소통 내용의 변화를 가장 잘 담고 있는 유일하게 접근 가능한 자료라는 점 때문이다.

또한 한 조직체에서의 의사소통 내용은 그 구성원 및 조직체의 특성과 목표, 합의사항, 바람을 담고 있기 때문에 대학신문의 분석결과는 대학간 차이를 개괄적으로 드러내 주게 될 것으로 믿기 때문이다.

한 가지 덧붙여야 할 사실은 이 글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대학신문의 분석결과는 1985년과 1986년 두 차례에 걸쳐 본인이 실시한 바 있는 한국 대학신문의 비교분석적 연구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이에 따라 본고는 먼저 이론적 배경으로 대학의 이념 및 기능, 대학의 조직체로서의 성격, 대학의 지역적 특성, 대학의 커뮤니케이션, 대학신문의 기능을 차례대로 고찰하고 결론적으로 한국 대학신문의 분석결과를 지방대학과 서울지역 대학신문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2. 大學의 理念 및 機能

대학은 그것을 보는 관점에 따라 그 본질이 달리 정의될 수 있다. 만약 순수 이념 또는 사상적 차원에서 대학을 파악한다면 대학은 학문을 탐구하는 곳이며, 그것은 학문의 목적과 본질을 둘러싼 哲學的 論議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학문 위주의 관점에서 볼 때 대학의 과제는 연구, 학문의 전달, 교양교육으로 압축된다.

그러나 이러한 철학적 이해방식과는 관점을 달리하여 社會的 機能論에 입각한 사회적 대학이해관점에서 보면 대학은 대학조직 발전을 기업적으로 도모해야 하는 기능, 사회정치적인 사회화의 기능, 일정한 지위집단을 배출하는 곳이라고 규정된다.

철학적 대학관과 사회기능적 대학관을 종합해 보면 대학의 본질은 교수·연구·사회봉사의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한국의 대학이 이 중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논자에 따라 다른데, 우리나라 교육법에 명시된 대학교육의 목적을 실례로 들어 한국대학이 사회봉사보다도 교수와 연구에 치중하고 있다고 보는 견해가 그 하나이다. 즉, 교육법에 의하면 "대학은 국가와 인류사회 발전에 필요한 학술의 심오한 이론과 그 광범위하고 정치한 응용방법을 교수·연구하며 지도적 인격을 도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서 사회봉사라는 개념을 명문화해야 할 단계에 이르렀다고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문헌조사와 실증적 자료를 분석한 연구결과를 보면, 첫째로 한국대학은 구체적인 대학 이념이나 특성을 결여하고 있고, 둘째로 기업주의, 지위추구, 정치사회화기관 지향, 지성의 전당의 속성을 조금씩 복합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셋째로 보다 구체적으로는 지위집단형성형 이념이 특히 강조되고, 넷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대학생들의 눈에는 한국대학의 무특성이 두드러지게 비쳐지고 있다는 것이다.

地位集團形成型 대학이란 대학교육은 학생들에게 일정한 신분집단의 일원이 될 수 있는 자질과 자격을 구비해 주는 것이다. 따라서 대학의 교과과정은 사회성, 지위추구에 대한 관심, 문화적 여가활동 등이 실질적으로 강조되는 것으로 본다. 그리고 이러한 지위집단 형성기능은 조선시대의 대학교육기관이었던 성균관에서부터 유래한다고 보는데, 첫째로 성균관 교육이 강조한 것은 입신양명을 위한 자질 함양이었고, 둘째로 명예와 특권을 부여받기 위한 집단형성을 위한 것이었다는 지적이다.

특히 사회의 지도적 인격의 배출이라는 기능적 특성이 강조되고 있음은 한국대학의 오래된 전통인데, 이와 같은 엘리트의식은 대학생들에게 사회참여를 통한 국가 및 사회발전의 역할수행이라는 명분을 제공했다고도 하겠다.

3. 大學의 組織體로서의 性格

대학이 그 자체로서 공식적이고 조직화된 제도라는 생각은 중세시대에 이루어진 개혁의 결과이며, 이것은 그리이스의 학파(school)나 조직의 초기적 형태를 지녔던 고대 알렉산드리아, 비잔틴, 그리고 아랍문화권 대학들과는 대조되는 것이었다.

중세대학의 조직적 특성은 16~17세기 영국의 대학들에 영향을 미쳤고, 미국의 대학들은 1900년대에 들어서서 이미 1860년대의 대학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하고 다기능적인 대학기구에 의해 운영되는 조직체로 변했다. 즉, 세계의 대학은 역사적으로 그 전 시대의 문화와 전통을 흡수하면서 거대한 조직체로서의 변모를 맞이한 것이다.

이러한 巨大 大學을 Clark Kerr가 최초로 멀티버시티(multiversity)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표현하였으며, 이제까지의 엘리트형 소규모 대학 구조와는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형태로 파악한다.

대학의 멀티버시티화는 사회발전과 팽창의 필연적 결과이면서도 또한 대학 본래의 본분을 위협하는 요소인 것으로도 우려되는데 대학입학자의 양적 증가, 과학교육 수준의 질적 향상, 연구에 대한 국가적 관심으로부터 오는 원조와 통제 등 제반 사회적·상황적 변인에 의해 초래된 멀티버시티는 이제 대학의 급속한 팽창과 함께 고도의 전문화·세분화가 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한편, 교육과 연구의 분리 경향이 대두되고 과학기술의 혁신에 호응하여 대학에 대한 사회로부터의 요청 및 압력이 증대되었다는 것이며, 여기에 대학의 위기가 존재한다고 Perkins는 통찰하였다. 그리고 대학 위기의 구체적 양상은 무분별한 대학의 확장, 지휘계통의 상실, 원리원칙의 상실, 변혁시대에 대응하지 못하는 대학의 태도로 나타난다고 본다.

Kerr는 이러한 멀티버시티가 도시 또는 도시국가와 같은 하나의 통치조직이자 모순 투성이의 조직이라고 본다. 또 그것은 단일한 공동사회가 아니라 여러 개의 작은 사회가 모여 있는 집합체라고 규정한다. 즉, 학부와 대학원, 인문과학·사회과학 및 자연과학, 각종 직업훈련소, 학문과는 무관한 직원, 대학 관리당국과 같은 기관들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렇듯 복잡화·전문화·세분화되어 가는 고도의 組織的 特性을 보이면서 동시에 대학이 과거에 지녔던 구심점을 상실해가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거대 조직화는 첫째로 학문과 관리영역 모두에서 행정인력과 행정기구의 양적 팽창을 초래하였고, 둘째로 학문 관련사항에 대한 부분적인 통제력이 통합되는 결과를 빚었으며, 셋째로 재단이사회와 총장의 영향력이 감소하는 것과 반비례하여 정부의 참여가 확산되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도 종합대학이 보편적인 추세로 정착된 지 오래인데다 늘어나는 학령인구를 수용하기 위한 대학의 양적 팽창과 많은 학생을 관리하기 위한 행정기구 팽창 등의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어 멀티버시티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관점에서의 고찰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에 직면해 있다.

4. 大學의 地域的 特性

대학의 역사는 대학이—특히 도시에서— 그 주변 환경으로부터 고립하여 존재해 왔음을 보여준다. 일례로 중세 서구유럽의 대학들은 도시 중심부에 위치했으나, 당시의 길드나 종교단체가 누려왔던 것과 같은 특별한 특권을 향유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고립의 특권은 세속적이고도 일시적인 권위와 끊임없이 투쟁하여 얻은 결과였고, 결국 대학의 사회적 역할이나 기능은 고립이라는 말로 결론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대학과 사회의 유익하고도 쌍방적인 협조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으며, 대학은 사회와 동떨어져서 또는 사회 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또한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대학과 사회의 有機的 協調 필요성은 대학의 사회봉사 기능의 수행이라는 측면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대학이 사회의 중심적 구성요소로서 갖게 되는,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와의 同質性이다. 그리고 그러한 동질

성은 대학사회 구성원들의 가치규범, 의식, 문화, 지향하는 가치관, 감정적 유대가 전체 사회 구성원들의 그것과 동질적인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대학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특성을 공유하고 또 지역간에 차이가 존재할 때, 대학은 地域差라는 변인에 의해 특성차를 나타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지역차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대학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대학은 사회와 고립된 존재로서 위치한다거나 또는 대학이라는 고유의 본래적인 특성이 대학을 동질화시키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1985년도에 오택섭·이재창은 정치·경제·사회 변인별로 우리나라의 '도시간 거리'를 MDS (Multi Dimensional Scaling) 분석법으로 측정한 바 있다.

9개 도시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정치·경제·사회 의식을 일차원상에 펼쳐 보인 '거리지도'에 의하면 우리나라 도시간의 유사성과 비유사성을 일목요연하게 살펴볼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사회적 거리를 예를 들어 설명해 보면 이는 '성취욕구를 나타내는 지배적 가치관의 성향'과 이를 '성취하려는 수단'의 유사성 정도를 측정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서울과 대전·광주가 이루는 群은 현실지향적 성취수단의 비중이 크다는 점에서 유사성을 보이고 전주, 부산, 대구, 인천군은 전통적 가치관에서 현실지향으로 전환하는 과정의 과도기적 성향을 띠고 있다. 반면, 거리지도의 왼쪽 끝에서 또다른 군을 이루는 청주, 춘천은 전통지향적 가치관이 다소 우세하다는 점에서 유사성을 갖는다는 것이다. 참고로 이 연구에서 정치의식은 '정치민주화에 대한 낙관·비관의 정도'와 '현실정치 문제에 대한 긍정·부정의 태도'를 반영하며, 경제의식은 '외형경제'와 '피부로 느끼는 감각경제' 등 두 가지 측면에서의 유사성과 차이 정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5. 大學의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은 가장 기본적인 사회과정이다. 커뮤니케이션이 없는 곳에는 인간집단과 사회와 문화가 존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엄밀히 말한다면 어떠한 기술혁명이나 학문연구도 곧 인간의 커뮤니케이션 행동의 일종이라 단언할 수 있다. 나아가 인간의 사상과 행동 역시 커뮤니케이션의 산물로 볼 수 있다. 그것은 사회가 인간의 상호작용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그 상호작용의 패턴은 곧 커뮤니케이션이기 때문이다.

대학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존재하는 조직체라 할 때, 커뮤니케이션, 곧 의사소통 행위 또는 그 과정은 대학사회의 網을 형성하는 기본적인 요소가 된다.

대학을 非同體 또는 地域社會(community)로 보는 관점에서 고찰할 때 대학은 감정과 가치, 상호적 역할(인정된 노동의 분화를 포함하여), 그리고 권위체계를 수용하는 면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또 공동체의식을 소유해야 하는 것이 기본이다.

대학도 하나의 학문 공동체로서의 본질을 유지하고 기능하기 위해서는 대학 구성원간의 이해, 의식의 동질성, 공통된 가치규범이 유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대학의 멀티버시티화되면서 거기에 속한 학생은 대학이라는 조직 전체와의 유대감은 없고, 오히려 세분화된 그룹과 연결되어 있을 뿐인 것으로 우려된다. 즉, 멀티버시티화의 추세는 대학 성원간의 구심점을 상실케 했고 불일치만을 증대시켜 왔다고 하겠다.

최근 들어 대학이 그 규모와 재정면에서 팽창을 겪게 됨에 따라 자연 행정기구도 비대해졌고, 결국 이는 행정측과 교원측의 명백한 이해대립을 초래하였다. 그뿐 아니라 전통적 공동체감의 소멸은 젊은 교원과 나이 든 교원 사이에도 발생하기 시작했으며, 나아가 교원과 학생들 사이의 이해의 동일성도 사라지기 시작했던 것이다.

따라서 대학 성원간 커뮤니케이션의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더욱 중요해지는데 대학 내의 유일한 공식매체로서 大學新聞의 價値가 이로써 보다 분명해진다.

6. 大學新聞의 機能

대학신문은 대학이라는 공동체에서 대학 성원간의 의사소통을 매개하는 언론형태이다. 따라서 대학신문은 대학이 추구하는 목표와 지향하는 가치, 그리고 수행하고자 하는 기능과 관련하여 존재할 수밖에 없고 아카데미즘과 저널리즘을 조화시켜 나가야 한다는 二重의 과제를 안고 있다.

일반적인 학교신문의 목적 중에서 대학신문과 관련이 깊은 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학교생활의 민주화와 향상 도모
② 학교경영, 학급경영의 유력한 도구
③ 학교행사에 대한 관심 고조
④ 학생간의 융화와 단결 도모
⑤ 집단생활의 문제해결에 기여
⑥ 자기집단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태도함양에 기여
⑦ 집단의 협조와 결정이 중요한 일의 고지
⑧ 의사교류를 위한 공통의 광장으로 기능
⑨ 봉사정신의 함양
⑩ 자신의 입장을 인식하게 하고 올바른 인간성을 형성
⑪ 학교의 전통을 보존
⑫ 계획성과 실천력을 형성
⑬ 올바른 비판적 태도의 육성
⑭ 여론을 환기시키는 여론지도자로서의 역할수행
⑮ 사회를 폭 넓게 보는 시각을 형성
⑯ 대중매체를 바로 보는 법, 생각하는 법, 판단력을 키움

여기서는 교육적 저널리즘이 크게 강조되어 있는데, 어쨌거나 대학신문은 현실과 또는 대학의 목적 및 기능과 유리되지 않은 주제를 이론적·비판적·분석적·논리적 시각으로 접근하여 독자에게 전달한다. 그 결과 대학신문은 동질적인 공중을 같은 주의성에 의해 결집된 집단의 성원으로 만든다.

이러한 대학신문을 일반신문과 비교해 보면, 첫째 일간신문은 조직화된 커뮤니케이션이나 대학신문은 비조직적이다. 둘째, 일간신문은 뉴스밸류를 중시한 저널리즘적 성격이 주가 되나 대학신문은 아카데미즘적 성격이 강하다. 셋째, 일간신문은 이질적이고 익명의 대중을 대상으로 하나 대학신문은 동질적인 집단을 대상으로 한다. 그밖에 일간신문은 현실성을 대학신문은 현실의 해석에 치중하고, 정기성에 있어서도 대학신문은 현실과의 간격이 넓다. 공시성은 비슷하나 대학신문에는 기업성이 없다는 차이가 있다. 또한 둘 다 기록성을 지니고 있으며, 대학신문이 계몽성을 강하게 띠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일반적으로 신문은 뉴스를 전파하는 매체이며, 그 뉴스를 선정하는 기준은 시의성(timeliness), 정확성(accuracy), 독자의 관심(reader interst), 의의성(significance), 근접성(proximity), 저명성(prominence), 인간적 흥미(human interest) 등이 있으며 뉴스전달에 있어서는 객관성·공정성·정확성이 중시된다. 그러나 대학신문은 기획기사를 비롯하여 논설, 평론, 투서, 칼럼 등 의견기사가 주류를 이루며, 뉴스원도 학교 내부에서 일어난 일, 학생 단체나 서클활동, 교수와 학생에게 관련이 깊은 뉴스, 학교주변 지역사회에 관한 일, 일반사회문제 가운데 대학과 관련되거나 학생과 관계가 깊은 뉴스, 타교에 관한 뉴스 등 사회가 아닌 대학이 그 취재영역이라는 차이가 있다.

7. 韓國 大學新聞의 內容分析 결과

여기서 제시하고자 하는 한국 대학신문의 내용분석 연구는 일반적으로 "한국대학이 서로 차별적인 특성을 갖지 못하는 無특성을 특성으로 하고 있다."는 지적의 타당성 여부를 실증해 보고자 하는 연구동기가 주요하게 작용하였다.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의 각기 다른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3개 지방대학(전남대, 경북대, 강원대)의 차이를 대학신문의 내용분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85년도 서울지역 대학신문(서울대, 고려대, 이화여대) 분석결과를 토대로 하여 지방대학과 서울지역 대학신문의 차이점도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러나 변인측정, 분석범주설정 등의 면에서 단순통계 이상의 통계처리를 할 수 없었던 바, 엄격한 의미의 가설·검증적 연구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 논의된 결론은 개괄적이고, 향후의 연구에 적절히 원용될 문제제기적인 차원에서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다.

대체로 지방 3개 대학은 대학신문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내용이나 형식면에서 절대적인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나 상대적인 차이는 존재하고 있었다.

첫째, 지방 3개 대학신문이 동질적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주요 신문기사의 주제가 19가지 정도로 압축될 수 있었고, 그 빈도나 종류면에서 대동소이하여 내용상의 차이를 보이지 않는 데다가 그밖에 기사유형, 정보원, 소구대상, 소구방식, 국가관련기사, 의견분포가 동일한 분석범주를 사용하여도 모든 기사의 분석이 가능했다는 점은 지방대학 신문의 대체적인 동질성을 대변해 주는 점들이다.

둘째, 상대적 차별성은 전남대가 사회현실지향적 주제기사에 보다 비중을 두면서 정부나 사회를 소구대상으로 하는 기사가 많았고, 아울러 기사유형면에서도 가십, 만평, 뉴스피처물과 같은 현실풍자적·비판적 기사가 많았는 바, 이는 전남대의 사회·정치의식이 타교보다 높고 다분히 현실참여적 성향이 강함을 나타내주는 결과이다. 이에 비해 경북대는 관념적·사변적 주제가 타교보다 많았는데, 정부나 사회를 소구대상으로 한 기사는 전남대의 절반 수준이고, 기사유형에서는 가십, 만평, 뉴스피처 등의 기사 비율이 전남대와 강원대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반면 전남대에서는 낮은 문예·창작 기사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즉, 관념성과 사변성이 두드러지는 한편으로 사회현실 지향의식은 전남대와 강원대의 중간 수준이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강원대는 대학 공동체 관련주제가 3개 대학 중 가장 많고, 기사유형면에서는 전체 평균치에 가까운 고른 분포를 보였으며, 사회와 정부를 소구대상으로 하는 기사는 가장 적었다. 즉, 가장 낮은 현실참여성향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3개 대학간의 상대적 차이 또는 거리는 전술한 바 있는 '도시간 거리' 지도와 거의 상응하고 있다. 즉, 광주가 정치·사회·경제 의식이 3개 지역 중 가장 높고 그 다음이 대구, 춘천 순인 것과 같이 현실지향적 의식과 그 비판적 태도가 대학신문 분석을 통해 전남대, 경북대, 강원대 순으로 나타난 것이다.

셋째, 의견분포면에서 3개 대학 모두 부정적 성향을 나타냈다. 특히 대학행정과 사회적 주제에서는 최하 75%에서 최고 84%에 이르는 높은 부정성향을 나타내는 동질성을 보였다. 이는 지방대학의 주요 정보원들인 학생, 기자, 교수의 대학행정에 대한 문제의식과 비판적 태도가 매우 높음을 반영한다고도 볼 수 있다. 특히 강원대의 경우 교수들의 부정적 성향은 3개 대학 중 가장 높았던 것이 주목되었다.

넷째, 지방대학은 전체 기획기사 중 절반 이상을 기존이론과 연구업적, 연구동향 등을 소개·설명하는 학술적 기사를 다루고 있었다. 특히 전남대의 학술기사 비율이 높았는 바, 이는 지방대학 신문이 단순한 대학 공동체의 의사소통 매개술의 기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식전달의 주요 도구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게 하였다.

다섯째, 지방대학 신문의 주요 정보원은 학생, 기자, 교수 3자가 96%를 점하였고 이 중 학생층과 기자는 비교적 안정된 기사점유비율을 보였다. 교수의 경우는 3개 대학이 두드러진 차이를 나타냈다. 전남대는 교수비율의 감소성향을, 경북대는 안정된 성향을, 강원대는 증가성향을 보인 것이 그것이다. 교수정보원의 증감문제는 교수에 대한 학생의 신뢰도 및 지식면에서의 의존도와 관련된다. 또한 교수와 학생의 유기적 상호신뢰 관계가 대학 발전에 필수적 요건임을 고려할 때, 매우 중요시해야 할 사항으로서 교수정보원의 감소는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인 것으로 평가된다.

여섯째, 지방대학 신문은 주제나 정보원의 연도별 변화(1970~1984)에서 어떤 일관성있는 변화를 보이지 않은 채 비교적 고정적인 양상을 나타내는 바, 이는 지방대학 신문이 시대나 사회변화에 비교적 둔감할 뿐 아니라 일정한 관행과 양식을 준수하고 있는 강한 보수성향 내지 정체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일곱째, 지방대학 신문은 국가적 차원의 기사

나 외국의 특정국가를 이슈로 한 기사 취급비율이 서울지역 대학들보다 현저히 낮았는 바, 이는 지방대생의 의식과 시각, 문제접근방식에 어떤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서울보다는 시각의 협소성이 눈에 띈다는 점인데 이런 경향은 전남대보다 경북대, 강원대가 훨씬 심각하였다.

여덟째, 지방대학 신문의 주요 소구대상은 학생층이었으며 학생의 기사참여 비율도 서울보다 훨씬 높게 나타난 바 지방대학 신문이 학생중심의, 즉 기자보다 학생이 주가 되는 신문체제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소구형태도 설득조의 기사가 많아 교육적 저널리즘의 형태를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홉째, 주제면에서 서울지역 대학들이 고른 분포를 보이고, 정보원도 학생, 교수, 기자가 92%로 지방대학의 96%에 비해 다양성을 띠고 있고 국가관련기사도 많이 취급하는 데다 주제변화, 정보원의 변화가 시기별로 뚜렷하게 나타나는 등 지방대보다는 다양성·균형성·심층성·거시성·사회 및 시대와의 연계성이 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었다.

그리고 대학행정에 대한 비판적·부정적 태도도 지방보다 낮았고(이대 제외) 전체적인 부정성향도 지방이 다소 높았다. 이것은 지방이 대학 공동체 관련기사와 신변감상적 주제가 많았음을 고려할 때, 부정성향도 주로 그와 관련된 것이라는 점이 고려되어야 하겠다.

교수정보원에서는 서울지역 학교가 전부 지속적 감소세를 보였고, 지방대 중 전남대가 역시 유일하게 감소세를 보여 전남대가 주제와 정보원면에서 서울지역 대학에 비교적 접근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도시간 거리' 지도에서 서울과 광주간의 거리가 매우 가까움을 상기해 보면 보다 이해가 용이하리라 본다. 그러나 주제성향만으로 볼 때 전남대는 고려대에 보다 근접하였고 경북대는 서울대에, 강원대는 이대에 근접하는 양상을 보여 주목되었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대학들은 서울과 지방을 막론하고 대학행정과 사회에 대해 높은 부정적 비판의식을 지니고 있으며 대학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사회의 지정학적 위치, 규범과 가치, 정치·사회·문화 의식, 외부환경과의 상호작용 정도, 즉 개방성 등의 변인에 의해 영향받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따라서 서울지역 대학과 지방대학의 신문 간에는 비교적 뚜렷한 차이점이 존재하였으나, 지방대학간에는 상대적인 차이점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85년도와 '86년도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한국의 대학들이 추구하는 이념 또는 중시하는 기능은 아카데미즘의 추구, 즉 학문연구와 전달, 사회현실참여 또는 지도, 그리고 대학조직체의 발전 등 세 가지 차원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또한 그러한 이념의 선택은 대학의 제정권과 인사권이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 지역사회의 공동규범과 가치지향에 따라, 대학자체의 역사와 전통 그리고 경험에 따라 결정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커뮤니케이션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외인적 요소들을 간과한 채 커뮤니케이션 내용 자체만으로 대학 공동체의 특성을 분석한다는 한계점이 있었고, 변인측정이 명명척도에 의해서만 행해진 까닭으로 고등계에 의한 차이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그리고 학생, 교수, 학교당국자에 대한 서베이가 병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분석과정에서 대두되었음을 밝힌다. ☛